

의 학도로서

가져야할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테마스쿨

3Rd Edition

목차

학생님들은 식사를 하고 싶어!

김재원

육아와 의사

신대희

그대 딴 생각 해보겠나

정철환

<학생님들은 식사를 하고 싶어!>

김재원 기자

맛집 탐방. 대가대 의과대학 학생들이라면 흔하게 하는 행동이다. 그도 그렇게 확실하게 하루를 잡아서 놀기엔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체력도 없다. 그러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 남지 않는다. 맛집 탐방은 시간은 짧게 소요되면서 가격도 비교적 다른 활동에 비해 덜 드는 편이다. 체력의 경우 회복되었으면 회복되었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맛집이 등산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바쁜 일정 속에서 맛있는 한 끼는 엄청난 힘이 되고 기분 전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맛집 탐방은 동기들이나 선후배와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우리학교에 교수님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버렸다! 김근해 교수님의 <삼미三味>를 취재해 보았다.

취재를 가려고 했을 때 삼미 조에서 지정한 맛집은 동인동에 에 위치한 <낙영 찜갈비>였다. 1974년부터 장사를 해온 곳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대구를 23년째 사는 나지만 맛보지 못해 설레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했다. 사실 취재에 앞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다른 교실은 교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예상이 되는 반면 이 교실은 예상이 되지 않았기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식사자리에서 조 활동이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처음 방문하자마자 어색하게 식사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 건 매우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무색해질 만큼 교수님께서서는 처음 가는 나도 참여할 수 있는 편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가주셨다.

‘수입 찜갈비’가 있었고 ‘한우 찜갈비’가 있었는데 우선 모두 한우 찜갈비를 먹었다. 그 전에도 찜갈비를 몇 번 먹어본적은 있지만 동인동 찜갈비라고 불리는 찜갈비는 이제껏 먹어본 것과 느낌이 달랐다. 다른 찜갈비가 조금 국물이 있는 편이었다면 동인동 찜갈비는 자박자박한 느낌이 훨씬 강했다. 또, 마늘과 생강으로 고기를 양념해서 그런지 느끼한 맛을 확실하게 잡아주어 끝맛 까지 깔끔해서 먹는 내내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적당히 매콤한 맛이 더워서 죽어있었던(그래도 잘 먹긴 했지만) 입맛을 강제로 깨워주기 까지 했다. 교수님께서도 가족들이 양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한동안 이런 음식을 못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좋다고 하시며 흡족함을 표하였다. 한우 찜갈비를 먹고 난 다음 수입 찜갈비와 비교를 하기 위해 추가로 수입 찜갈비를 시켜보았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교 하지 못할 것이다, 등등의 의견이 많았지만 막상 먹었을 때 모두 차이를 알 수 있었을 만큼 수입산 고기는 펍펍함이 강했고 달짝지근한 맛이 덜했다. 한우 찜갈비는 기름이 고기 전체에 촉촉이 배여 먹을

때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수입 찜갈비는 먹자마자 “음?!” 할만큼 퍽퍽했다. 신토불이를 가슴에 한번 더 새길 수 있었던 기회였다.

식사를 하며 생각보다 많은, 또 깊이 있는 대화가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병원에서 겪을 생활들, 인간관계, 전공하는 과를 선정할 때의 기준 등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설명해주셨다. 교수-학생의 관계보다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매우 친절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설명해주려고 노력하셨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보도본부로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 교실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교수님께 여쭙보았다. 교수님께서 “교수와 학생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교실을 구성하게 되었다. 또, 본과생들 너무 고생하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숨통이 좀 트거나 고민이 있다면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감탄을 자아 내셨다.

처음 <삼미三味> 교실에 대해서 들었을 때 “뭘할까?” 하며 의아한 생각을 했던 나였다. 그 생각은 취재를 하기 직전까지도 들었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교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만나서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실들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학생들은 선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문을 해결할 뿐이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와 학생이 같이 얘기 할 수 있는 교실은 몇이나 될까. 그런 점에서 <삼미三味>는 의미가 있다. 단순하게 <삼미三味>를 바라봤을 때는 ‘맛집 탐방’ 교실로 보일 수 있지만 교실을 진행함에 있어 ‘맛집 탐방’이 있을 뿐이지, 교실의 본질은 교수와 학생의 소통에 집중되어 있던 교실이었다.



<육아와 의사>

신대희 기자

의사에게 있어 환자와의 친밀감 형성, 소위 라뽀 쌓기는 매우 중요하다. 진료의 진행도 훨씬 수월해지며, 좀 더 자세한 병력 청취,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육아도 환자와의 친밀감 형성과 유사한 점이 많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교육방식이나 가치관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상황과 나이에 따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아이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육아를 할 것인가,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김인환 교수님과 박명훈, 서성민, 송명진, 이윤상 학생이 앞산으로 향했다.



루가관 건물에서 모여 김인환 교수님 자동차에 옹기종기 앉아 앞산으로 향한 학생들은 앞산 케이블카 까지 교수님과 가볍게 산책을 나섰다. 산을 걸으면서 서로 그간의 안부를 묻고, 교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셨다. 교수님께선 막내로 태어나셨고, 위로 누나가 4명, 형이 1명 있다고 하셨다. 부모님과 형 누나의 사랑을 독차지 했을 것이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누나와 형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학생 시절 자기 또래들은 소풍날 무조건 이곳 앞산으로 소풍을 와서 그 때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씀해주셨다.



앞산 케이블카에 도착하고 케이블카가 도착하기까지 대기시간동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실 원래 우리 조가 다루려한 주제는 육아와 의사-환자 관계였지만 환자 관계까지 다루기엔 주제의 양이 많고 또한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 학생들과 좀 더 가볍게 소통하고 싶어 육아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앞산 전망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조 이름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하셨다. 케이블카에 탑승한 후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앞산의 경사가 가팔랐다는 점이다. 창밖의 경치를 보면서 교수님께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앞산을 등산한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아버지 따라 등산 안 간다고 아버지께 항의하셨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앞산 전망대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늘은 아주 푸르렀고 항상 크게 보이기만 했던 병원 건물이 이곳에서 보니 건물 사이에 가려 잘 분간이 안갔던 것도 매우 신기했다. 풍경사진과 조원들 사진을 찍으면서 나도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다시 방문해 이 풍경을 보여주고 싶단 생각을 했다.



전망대에서 경치를 마음껏 구경한 교수님과 학생들은 전망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모임을 계속 진행했는데, 아까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각자 생각해본 조 이름 후보를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명진 학생은 ‘그 남자들의 육아’, 서성민 학생은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어 ‘아빠타’, 이윤상 학생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 박명훈 학생은 조원들끼리 의견을 나눠가며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Daddy 코디네이터’라고 제안했고 조원들 모두 박명훈 학생의 의견에 찬성했다. 또한 자신의 2세 이름을 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수님께서 자제분들의 작명 경험을 말씀해주셨다. 각각 ‘지원’과 ‘예준’이었는데, 첫째인 지원이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둘째인 예준이는 세상을 즐기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으셨다 한다. 그 후에 조원들끼리 대화를 통해 작명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 순수 우리말로 지은 이름 등등 여러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송명진 학생은 만약 자신이 딸을 낳게 되면 이름을 ‘송이라’라고 짓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모임 때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모임 때는 각자 몇 가지 상황들, 이를테면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온 경우, 왕따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첫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 경우 등등을 가정해 와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 하셨다.

먼 훗날 꼭 겪는,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감이 잡히지 않는 육아라는 개념에 대해 나는 이제까지 그리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쉽고 당연 할 줄만 알았던 상황들이 때론 복잡하고 나오는 다른 생각을 나누는 이들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교수님

께서 본인의 어린 시절과 육아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하나의 길잡이로서 참고가 되었다. 언젠가 부모가 될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떠한 교육관으로 아이의 미래에 빛을 비춰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모임이었다.

<그대 판생각 해 보겠나?>

정철환 기자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 단체들은 모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얽혀 문제 해결에 있어 편협한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갈등을 야기하며 다각적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재욱, 손창수, 임상우, 하태현 그리고 이용직 교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대 판생각 해 보겠나?>조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각적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다고 한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하고 있었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도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대 판생각 해 보겠나?>조는 이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 기업, 의사, 환자의 입장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고민해본 후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의 근거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누가 미래의 자동차를 지배할 것인가?', '이기는 선택', 최고의 선택', '어디서 살 것인가' 등의 책을 읽고 각자 인상 깊게 읽은 부분,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같은 책을 읽어도 각각의 다양한 생각, 소감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화웨이 사태 등 화제가 되는 최근의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보기도 했다.



다각적 사고는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소화하며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연상 작용은 창의성을 신장한다. 이러한 연상 작용이 사고의 지름길로 작용하여 상황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고려할 수 있어서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답을 낼 수 있게 한다. 같은 주제라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며 자신과 다른 입장을 받아들이며 딴 생각을 해보는 <그대 딴생각 해 보겠나?>조를 취재하며 '딴생각'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사회 전체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우리는 의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 과학적, 분석적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더욱 편협한 사고를 경계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 입장을 포괄하는 다각적 시선이 필요하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의대생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각적인 접근, 사고의 중요성이 다르지 않다. 이런 접근은 우리의 삶에서 가치판단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의 건강한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딴생각 해보겠나?'